

근대국어 '-어이다' 구성의 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이 태 영
(전북대학교)

Lee, Tae young. 1998. Syntactic Properties of '-əida' in Modern Korean. *Linguistics*, 6-2, 161-18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yntactic Properties of '-əida(-어이다), -ə hanaida(-어 하
는이다)' in Modern Korean in order to seek for the pragmatic function of 'ida(이다)'. Traditionally, 'yə/ya(여/야), ə/a(어/아)' of '-əida' has been treated as prefinal ending. In this paper, however, 'yə/ya, ə/a' will be treated as connective ending, because contraction forms of 'yə /ya, ə/a' do not appear, but contraction forms of '-so(소), -o(오), -de (데), -nai(나)' appear.

In conclusion, '-əida' is generated by contraction of '-ə hanaida', and '-əida' has 'verb stem + connective ending + ida' construction. As a result, 'ida' has pragmatic function. (Chonbuk University)

1. 서론

본고는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어이다' 구성과 '-어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혀 '-어이다' 구성에서 '이다'의 화용적 기능을 밝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대국어 문헌인 <捷解新語>를 보면, 자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이다'가 연결된 구문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감격하여이다, 아롭다와이다, 너머이다'라는 구성이 그것이다. 이 구성은 부동사형 어미와 동일한 '어/야, 여/야, 와/위'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¹⁾

허용(1975:923)에서는 중세국어의 '여이'를 선어말어미의 연속체로

처리하고 있다. 선어말어미로 보는 관점은 중세국어의 ‘녁시 어느 趣에 간동 물라이다 <月釋21,27a>’와 같은 예의 ‘물라이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구성들에서 ‘어/어’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한다면, ‘-어이다’는 그 결합관계가 ‘-소이다, -더이다, -느이다, -거이다’ 등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이다’ 구성에서 ‘어/어’를 선어말어미로 본다면 현대국어의 해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근대국어에서 어미 변화가 일어날 때, 공손법의 선어말어미 ‘-이-’가, 선행하는 선어말어미에 축약되어 나타나, 이것이 현대국어에서는 하계체의 종결어미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인 ‘-소, -데, -네, -세’ 등은 이미 중세·근대국어에서 변화를 일으켜 종결어미가 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²⁾ 따라서 기존의 견해에서 선어말어미로 해석하고 있는 ‘어/아, 여/야, 와/워’의 경우도 예를 들면 ‘-에/애, 예/애, 왜/웨’와 같이 축약된 종결어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서 이 형태는 축약된 종결어미로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국어의 ‘감격호여이다, 아름다와이다, 너머이다’라는 구성에서 ‘-어/아’를 선어말어미로 해석해 버리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근대국어의 ‘감격호여이다’와 같은 구문에서 ‘여/야, 어/아, 와/워’ 등을 선어말어미로 보기에겐 미흡한 점들이 있다.

첫째로 근대국어에서 ‘어/아’가 선어말어미라면 그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다. 대체로 강조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로 ‘어/아’가 선어말어미라면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인 ‘-어/아’는 선어말어미에서 온 것으로 해석해야

1. ‘워/와’의 형태는 대체로 선행하는 어간이 비음을 가질 때 ‘어/어’와 결합하면서 ‘와/워’가 되거나 또는 경양의 선어말어미 ‘-오-’와 ‘어/어’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그 구성의 쓰임을 보이기 위하여 ‘와/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반적으로는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인 ‘-네, -데, -세’ 등을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서태룡(1985)에서는 이 형태소들을 더 이상 분석하여 ‘-이’를 종결어미로 분석해 내고 있다.

하는데, 대부분의 견해는 접속어미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로 '-소이다, -오이다, -느이다, -더이다, -사이다' 등의 어미 구성체에서 '-이다'가 축약과 생략현상을 거치면서 '-쇠, -외, -니, -데, -새' 등으로 바뀌고 현대국어에서는 '-소, -오, -네, -데, -새' 등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어이다'의 '어'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다르게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³⁾

이 구성을 달리 보는 견해는 '-어이다'의 구성에 나타나는 '-어/아, -여/야, -와/워'를 부동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견해이다. 김형규(1955:199)에서는 고려가요 <雙花店>에 나오는 '回回아비 내손모글 주여이다'의 구문에서 '주여이다'의 구성을 '동사·형용사의 連用形 다음에 '이라' 또는 '이다'를 붙임으로써 감탄의 종지형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때 '連用形'이란 말은 '접속어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를 부동사형 어미로 보고 있다.

부동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형태소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할 수 없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로 이 어미들이 접속어미의 형태소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접속어미의 활용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로 '어/아, 여/야, 와/워'의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강조법 구문이라고 칭하고 있다. 셋째로는 이 구성이 '-어 하다'의 구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다른 선어말어미와는 달리 축약된 종결어미가 근대국어

3. <순천김씨묘 한글편지>와 <진주하씨묘 한글편지>에서는 몇 개의 예가 보인다.(황문환,1977:190) 그러나 이 현상은 극히 제한된 지역의 방언 현상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축약된 종결어미의 체계 안에서 논의하기가 어렵다.

슈오기 아바니미 내가 다들가커니와 윈 더 와서는 아니 날 므미 업세 <청주,190>

니월 열하르미나 될가 시브니 만방하베 <청주,51>

아히돌 드리고 엇다 겨신고 괴벨 몰라 분별이 7이 업세 <달성,97>

나도 오늘부터 아니 알폰 더 알세 살오더 강잉하여 드니자 하니 더욱 설웨 <달성,94>

와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고는 '-아/어'를 부동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입장에 선다. 우리가 취하는 이러한 입장에 서면 우리는 '감격하^ㅎ여이다'의 구성을 평면적으로는 '어간 + 부동사형어미 + 이다'의 구성으로 보는 아주 특이한 구성체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국어의 문헌인 <捷解新語>의 이본에 나타나는 예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성이 왜 이루어졌으며, '이다'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근대국어 '-어이다' 구성의 유형

2.1. '-여/야/영이다'

'-여이다'의 구성은 중세국어에서는 '-여이다'의 구성이었던 것이 'ㅇ'음의 약화로 인하여 '-영이다'의 구성을 거쳐 '-여이다'의 구성을 이룬 것이다.

'-영/양이다'의 구성은 '-여/야이다'의 구성에서 'ㅇ'음이 선행하는 음절의 말음으로 발음이 난 표기로서 'ㅇ'음의 음가를 표기한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이다'의 구성이 '-영이다'로 표기된 것은 중세국어에서부터 '-여 + 이다'의 구성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捷解新語>에서 이 '-여이다' 구성이 관여하는 동사는 모두 다 자동사와 형용사이고 주어는 화자인 일인칭이 주어이다. <捷解新語> 원간활자본에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御意 감격하^ㅎ여이다 <原捷2,1b>⁴⁾
 b. 먹디 못^ㅎ고 누어 잇스오니 민망하^ㅎ여이다 <原捷2,3a>
 c. 예^ㅎ스지 극^ㅎ진히 무로시미 感激하^ㅎ영이다 <原捷7,14b>

4. <첩해신어> 이본 가운데 원간본은 '原捷', 개수일차본은 '改一', 개수중간본은 '改重'으로 약호를 표기한다.

d. 멀리 마즈심 滿足ᄃᆞᆫ양이다 <原捷5,19a>

2.2. '-와/워/왕이다'

이 구성은 '아름답-'에 부동사형어미 '-아'가 붙어 '아름다와'가 되고 거기에 '-이다'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이 구성에서도 역시 '-이-'의 'ㅇ'음이 선행하는 음절의 말음으로 발음되었음을 보여주는 표기가 보인다. 이 구성에 쓰이는 동사는 '-여이다'의 구성과 같이 형용사가 쓰이고 일인칭이 주어인 점은 같으나, 이 구성에서는 평가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쓰이고 있다.

(2) a. 울스와이다 <原捷3,13a>

b. 酒氣 一切 업스오니 술과 거동이 꺾스와이다 <原捷3,16b>

c. 이후란 여러번 술거든 들으심이 들스와이다 <改重6,28a>

d. 心中이 서르 전ᄃᆞᆫ인가 더욱 아름다와이다 <改重9,2b>

e. 御慰勲ᄃᆞᆫ신 말씀ᄃᆞᆫ티 도로혀 붓그릅스왕이다 <原捷6,10b>

f. 心中이 서르 던ᄃᆞᆫ인가 더욱 아름다왕이다 <原捷9,2a>

g. 도흔 일이로더 그저 니르기 어려워이다 <伍倫2,17a>

2.3. '-어이다/아이다'

순수 감정동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상 감정과 관련된 자동사나 형용사는 '부동사형어미 -하/어 + -이다'의 구성을 갖는다. 아래의 예에서 '넘다, 업다'는 문장에서 화자의 감정과 관련된 용언이기 때문에 '어간 + 부동사형어미 + -이다'의 구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이본과의 비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3) a. 어제는 對面ᄃᆞᆫᄃᆞᆫ고셔 서르 말씀ᄃᆞᆫ오매 아름다오미 禮에 너머이다 <原捷7,22b> (cf. 어제는 보시고 서르 말씀ᄃᆞᆫ오니 感激히 너기음

니 <改-7,33b>

b. 하 극진히 더접^하옵시니 술을 양도 업서이다 <原捷3,5a>

근대국어의 '-어이다' 구성은 주어가 일인칭인 '화자'를 나타내고, 그 선행하는 용언은 형용사나 자동사로서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거나,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이제까지 검토한 모든 예에서 '-여/야이다, -와/워이다, -어/아이다' 등의 '여/야, 와/워, 아/어' 등은 모두 접속어미와 그 형태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야, 와/워, 아/어' 등의 형태가 접속어미인가 아니면 '-어이다' 구성에서 선어말어미로 처리되고 있는 '어'의 이형태들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여/야이다, -와/워이다, -어/아이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접속어미는 '여/야, 와/워, 어/아' 등이 있다.

- (4) a. 안히 잇스오니 判事네도 同道^하야 오쇼셔 <原捷1,2b>
- b. 안히 잇스오니 대되 同道^하여 오쇼셔 <改-1,3a>
- c. 水木船이 돛기 사오나와 떠뎛^하습니 <原捷1,11b>
- d. 집이 파락^하여 더러워 一夜를 계요 堪忍^하여시니 <改-1,36b>
- e. 자니네 十日 二十日 무^거 도라가셔도 <原捷3,24a>
- f. 路次의 곁반 계요 이지야 守門^하지 완습니 <改重1,2a>

위에 보인 예의 부동사형어미와 앞에서 이미 제시한 '-어이다' 구성에서의 '여/야, 워/와, 어/아' 등의 어미는 형태상으로 완전한 일치를 보인다. 그렇다면 형태적으로 동일한 이 형태들이 접속어미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로 근대국어에서 축약된 종결어미로는 '-외, -쇠, -데, -니, -새(시)' 등이 있는데 이는 각각 '-오이다, -소이다, -더이다, -느이다, -사이다'의 구성에서 축약된 것이다. 이들은 현대국어에서도 쓰이고 있

다. 그러나 '-어이다'에서 '-어/아'를 선어말어미로 본다면 이것도 역시 축약된 종결어미 형태인 '-에/애'나 '-예/애, -왜/왜' 구성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이는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현대국어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어이다'의 구성을 축약된 종결어미라는 문법 체계 안에서 다루기 어렵다.

둘째로 '-오-, -소-, -더-, -느-, -사-' 등의 선어말어미들은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야, 와/워, 어/아'는 완전히 어미의 활용형과 똑같은 이형태를 가지고 있어, 선어말어미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셋째, '-어이다'는 '이다'의 '이'가 공손법의 선어말어미인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경어법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경어법의 위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어 하느이다' 구성을 통하여 '-어 하옵니, -어 하옵느이다, -어 하느이다, -어 하느' 등의 구성과 '-오이다, -외' 등의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어이다'의 구성은 상대경어법 상의 하오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예를 들면 '붓그림스와이다'는 현대국어에서도 고어투로 '부끄럽사와요'로 쓰이고 있는데, 이때 '이다'는 '요'와 비교할 수 있는 성분이다. 따라서 경어법으로 볼 때도 그 경어법 상의 위계는 다르지만 '이다'가 '요'와 같은 접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다섯째, 20세기 초 경관 목판본 <강태공전>에 '이다'가 접속어미에 연결된 유일한 예가 나온다. 접속어미인 '-거니와'에 '이다'가 연결된 구성이 보인다. 예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다'가 접속어미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일을 무른디 숨뇌 우으며 왈 니 드른 지 오리되 낭지 알면 번민
 홀가 호여 말 아니 호엿더니 과연 그러호거니와이다 <강태공전, 하
 19a>

5. 물론 현대국어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사와요, 부끄러워요'에서 '아'는 부동사형어미로 보기 어렵고 종결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어이다’ 구성에서 ‘어/야, 와/워, 어/아’ 등을 접속어미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어이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근대국어의 일본어 학습서인 <捷解新語>의 이본에 나타나는 예들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어이다’ 구성에 선행하는 요소가 반드시 ‘感激하다, 安堵하다, 념다, 노하다’와 같은 자동사나, ‘맛당하다, 민망하다, 아롭답다, 없다, 만족하다, 붓그럽다, 동다, ㄹ다’와 같은 형용사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들 자동사나 형용사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 또는 판단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자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감격하어이다’ 구성은 현대국어로는 ‘감격합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위 예문의 문장들이 <捷解新語>의 이본에서는 타동성의 문장인 ‘하어 하다’의 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망하어이다’는 이본에서 ‘민망히 너기느이다’와 ‘민망하어 하느이다’ 등으로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어이다’의 구성과 ‘-어 하다’의 구성이 이본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름다와이다’의 구성이 일차적으로는 ‘상태성’의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름다와 하느이다’의 구성처럼 ‘동작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 하다’의 구성은 심리상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타동문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捷解新語> 이본에 나타나는 ‘-어이다’의 구문과 ‘-어 하다’의 구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관련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a. 軍官을 보내어 무르시니 감격하어 하옵너 <原捷1,22b>
 b. 軍官을 써 무르시니 감격히 너기옵너 <改-1,34a>

- c. 軍官을 써 무르시니 감격히 너기옵니 <改重1,27b>
- (7) a. 御意 감격하여이다 <原捷3,17b> (cf. 감격하여 하느이다)
- b. 御意 感激히 너기느이다 <改-3,23b>
- c. 御意 感激히 너기옵니 <改重3,22b>

위의 예는 자동사 '감격하다'가 쓰인 예문으로, '감격하여 하다'의 구문은 제삼자가 하는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장은 '客'인 導船主가 '主'인 問情官에게 직접하는 말이다. 이본에서 '감격히 너기다'의 구문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분명히 타동성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격하여이다'의 구문은 자동사로 쓰이고 있지만, 이본에서는 타동성 구문으로 표현되고 있고,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상으로 보면 타동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듯하다.

- (8) a. 어와 註進을 극진이 하시다 니르시니 安堵하여 하옵니 <原捷5,8a>
- b. 天氣도 머흐디 아나 예쁘지 오오니 이제야 安堵하영이다 <原捷5,19a>

위의 예문에서는 아주 흡사한 구문에 '安堵하여이다'의 구성과 '安堵하여 하다'의 구성이 쓰이고 있다. '安堵하여 하다'의 구성과 '安堵하여이다'의 구성에서는 모두 자동사의 기능과 함께 타동성도 찾을 수 있다.

이제 형용사와 관련된 구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9) a. 우리 心中이 서르 던하인가 더욱 아름다왕이다 <原捷9,2a>
- (cf. 아름다와 하느이다)
- b. 우리 心中이 서르 전하인가 더욱 아름다와이다 <改-9,2b>
- c. 우리 ㅁㅁ이 서르 전하인가 더욱 빠 아름다와 하옵니 <改重9,2b>

- (10) a. 오늘은 看品에 브터 처음으로 보옵고 아름다와 ㅎ느이다 <原捷4,1a>
 b. 오늘은 看品에 브터 처음으로 보옵고 아름다이 너기느이다
 <改-4,1a>
 c. 오늘은 看品에 부터 처음으로 보옵고 아름다이 너기느이다
 <改重4,2b>
- (11) a. 처음으로 御對面호오니 아름다와 ㅎ옵너 <原捷4,1b> (cf. 아름다와이다)
 b. 처음으로 御對面호오니 아름다이 너기옵너 <改-4,2a>
 c. 처음으로 御對面호오니 긴비 너기옵너 <改重4,3a>

자동사가 쓰이는 구문과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쓰이는 구문에서도 ‘아름다와 ㅎ다’의 구문은 타동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구문은 이본에서는 ‘아름다이 너기다’의 표현으로 쓰여 타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아름다와이다’의 구문은 현대국어로는 ‘기쁘니다’의 뜻을 가지면서도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뻐합니다’의 의미인 타동성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와 ㅎ다’의 구성도 역시 자동사적 용법도 보이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아름다와이다’는 ‘기쁘다’는 마음의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성의 표현이지만, 그 이본에서는 같은 표현을 ‘아름다와 ㅎ다’의 표현으로 하여 타동성을 띤 ‘동작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와이다’의 경우에도 완전히 상태성만을 띤다고 볼 수 없으며, 동작성의 표현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12) a. 밥도 일절 먹디 못호고 누어 잇스오니 민망호여이다 <原捷2,3a> (cf. 민망호여 ㅎ느이다)
 b. 食事도 일절 못호옵고 안히 누어 일스오니 민망히 너기느이다 <改-2,4a>

형용사 ‘민망하다’가 쓰인 문장이 ‘민망호여이다’로도 쓰이고, ‘민망히

너지다'로도 쓰여 전자는 상태성을 후자는 타동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일단 해석된다. '민망하여이다' 구성을 '민망하여 흐느이다'로 대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망하여이다' 구성에는 타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 하다'구문이 발견되지 않는 형용사로는 '없서이다, 붓그럽스와이다, 도싼와이다, 만족하여이다, 맛당하여이다' 등이 쓰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일차적으로는 상태성을 표현하는 구문이지만 동작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상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어 흐느이다'와 같은 타동 구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13) a. 이러로서도 몬져 술오려 **흐열든더** 이리 니르시미 **맛당하여** 이다 <原捷7,11a> (cf. **맛당하여 흐느이다**)

b. 御手前面上의는 酒氣 一切 업스오니 술과 거동이 **궤즈와** 이다 <原捷3,16b> (cf. **궤즈와 흐느이다**)

c. 御慙慙^{ᄒᆞ}신 **말습것티** 도로혀 **붓그럽스왕**이다 <原捷6,10b> (cf. **붓그럽스와 흐느이다**)

d. 그저 예서 도라가시미 **도싼와**이다 니르니 <原捷8,30b> (cf. **도싼와 흐느이다**)

e. 안즈라 니르시니 **술을 양이** 업서이다 <原捷3,8b> (cf. **업서 흐느이다**)

중세국어의 '-어이다'구성을 살펴보면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어/아이다'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어/아'는 부동사형 어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동사에도 '-어이다'의 구성이 쓰이고 있다. 타동사 '모르다'를 '몰라이다, **모르스바**이다'의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중세국어에서 보이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자동사와 형용사의 예의 경우에서도 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싫다'는 형용사

이다. 그러나 '설버이다'의 용례에서는 타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14) a. 내 …… 오늘 尊者 보습보니 깃부미 그지업서이다 <釋詳 24,34b> (cf.견의는 처음으로 보습고 그지업서 ㅎ습테<原捷3,4b>)

b. 녀시 어느 趣에 간동 몰라이다<月釋21,27a>

c. 大王하 나도 여래 겨신 디를 모르습바이다 <月釋21,192a>

d. 나도 머릴 올위러 설버이다 求하쇼셔 비습보니<月釋2,52a>
(cf.설위 ㅎ녕이다<東新續忠,3b>)

이제까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왜 '-어이다'의 구문에서 자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의미상으로 타동성을 띠는 것일까? 그것은 그 변천과정에서 '-어 ㅎ다'의 구문에서 변천된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우리는 '-어이다'구성의 종류를 검토하면서 이 '-어이다'의 구성이 '동사의 어간 + 부동사형어미 + -이다'의 구성으로 되었음을 밝혔다. 우리가 논의하는 '-어이다'의 구성이 '동사의 어간 + 부동사형어미 + 이다'로 구성되어 있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다면, 이 구성은 국어 문법에서 아주 특이한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어의 형태소 결합에 있어서 부동사형 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서로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구성은 정상적인 구성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모종의 문법적 변화과정을 거쳐 생성된 '구성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모종의 문법적 변화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중세국어어를 살펴보면 부동사형어미인 '-야/여'와 '-어/아'가 'ㅎ다'동사와 어울려 쓰인 예가 발견된다. 다음의 예가 그것이다.

(15) a. 가마피와 가치물 띄여 ㅎ다니<杜初8,39b>

(cf.부터 보내디 아니호물 爲하야 띄노라<杜初7,20b>)

b. 제 모땃 고기를 바혀 내논 드시 너겨 ㅎ며<釋詳9,12a>

(cf. 한 **술**에 다 니르디 아니 **호**시니라 너기며<榜嚴1,16b>)

이현희(1985)에서는 이 구성 중,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는 경우는 '행동성의 강조',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는 경우는 '상태성의 강조'로 그 기능을 해석하고 있다.⁶⁾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는 '-어 호-'의 구성은 '-게 호-'의 구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게 호-'의 구성이 사동적인 표현임에 비하여, '-어 호-'의 구성은 '능동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 호-'의 구성은 동작성과 상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타동적인 구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송철의(1983:54)는 '파라호-, 거머호-, 등그러호-' 등은 복합어인데 이것이 파생어로 인식되면서 '파랴다, 거머다, 등그랴다'로 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현희(1985:4)에서는 색채형용사에 '-아/어 호-'가 결합된 구문은 '상태성의 강조'라고 해석하고 있다.

버들 파라호며<南明下,19>
 종남산이 거머호도다<杜重13,12>
 얼굴이 등그러호니<火包,7>
 物이 하야호야<杜初8,53>
 ㄱ르멧 雲霧ㅣ 누러호도다<杜重10,45>
 ㄹ 우미 파라호도다<杜重6,51>

한편 색채 형용사가 아닌 경우에도 형용사가 '-아/어 호-'의 구성을 이루는 예들이 <捷解新語>에서 발견된다.

전의는 처음으로 보옵고 그지업서 **호**옵테 <原捷3,4b>
 전의는 처음으로 보옵고 긴거 **호**옵테 <改-3,6b>
 다만 술호여 호시게 술논 일이언바논 <原捷9,10b>

형용사인 '그지없다, 깃다, **술다**'가 '-아/어 호-'의 구성을 갖게 되면 형용사에서 타동 구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좋다, 밉다, 싫다' 등이 '좋아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의 구성으로 타동사로 바뀐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현상이 출현한 이유로는 근대국어에 이미 자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아/어 호-'의 구성이 연결되면서 타동 구성이 되는 전반적인 현상과 관련된다.

이 구성에서 '-어'는 단순히 '부동사형 어미'라는 이름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원래는 '-어 하-'의 구성에서 '-어'가 접속어미로 기능하던 것이었고, 뒤에 나오는 동사 '하다'는 본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가 접속어미로 쓰이던 문장이 후행문의 '하다'동사와 어울리면서 '능동적인 표현'을 갖게 되고, 차츰 형태론적 구성으로 '-어 하-'의 구성을 띄게 되면서 '하다'동사는 보조동사 내지는 복합동사적인 성격을 띄는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근대국어에서 '-어이다'의 구성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6) a. 御意 감격하여이다 <原捷3,17b> (cf.감격하여 하느이다)
 b. 御意 感激히 너기느이다 <改-3,23b>
 c. 御意 感激히 너기옵니 <改重3,22b>

자동사나 타동사에 연결되는 '-어이다'구성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감격합니다'와 같은 뜻의 형용사이고, 다른 하나는 '감격하여 합니다, 감격히 여깁니다'와 같은 뜻의 타동성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어이다'의 구문이 '어간 + 어 + 이다'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사형어미 뒤에는 선어말어미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다'는 분명히 후행문의 종결어미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다'는 단순히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된 구성체가 아니라 후행동사와 관련된 구성체임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대동사 '하-'가 쓰인 '하느이다'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감격하여이다'의 구성은 '감격하여 하느이다'의 구성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감격하여 하느이다'의 구성에서 '하느이다'의 대동사 '하-'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즉 '여기다, 생각하다, 느끼다' 등의 타

동사가 대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구성에서 타동성의 동사가 대동사인 'ㅎ-'로 바뀌고 'ㅎ-'가 대동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결합현상이 일어나 '감격ㅎ여이다'와 같은 구성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감격ㅎ여 ㅎ느이다'의 구성은 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사적으로는 타동성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감격ㅎ다'의 느낌을 지속하는 지속상의 상적인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감격ㅎ여 ㅎ느이다' 구성과 '감격ㅎ여이다'의 구성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첩해신어>의 일본어의 표기가 '감격ㅎ여이다'와 '감격ㅎ여 ㅎ읍니'의 구성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かたじけのうござる(카다지께노우고자루)'의 원문이 보이는데 'かたじけない(카다지께나이)'는 '감격하다'는 뜻이고 'ござる(고자루)'는 "있다"의 존경어 내지는 공손체로 쓰이고 있다..

(17) a. 먼더 극진이 軍官을 보내여 무르시니 감격ㅎ여 ㅎ읍니(かたじけのうござる) <原捷1,22b>

b. 御意 감격ㅎ여이다(かたじけのうござる) <原捷3,17b>

한편, '감격ㅎ여이다'의 구성은 이본들에서는 '감격히 너기느이다'와 같이 쓰이는데 이것은 '감격ㅎ여이다'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감격ㅎ여 ㅎ느이다' 구성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반면에 'ㄹ즈와이다, 맛당ㅎ여이다'와 같은 예에서는 타동성보다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감격ㅎ여이다'와 같은 구성이 굳어지면서 생산성을 띄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⁷⁾

7. <약장가사>에 실려있는 고려가요 '쌍화점'에는 '回回아비 내손모글 주여이다'의 예가 나온다. 이때 '주여이다'의 동사는 '취다'로 타동사이다. 이것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이다' 구성의 용언이 대부분 자동사나 형용사임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타동사에도 나타나게 되었을까?

자동사와 형용사가 '-어 ㅎ다'의 구성을 통하여 타동성의 표현을 갖게 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중세국어의 예에서도 자동사나 타동사 형용사를 막론하고 '-어이다'의 구문이 나오고 있다. 타동사일 경우에는 '-어 하느이다'의 구성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자동사나 형용사일 경우는 '-어이다'의 구문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예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이다' 구문과 '-어 하느이다' 구문은 서로 교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위의 많은 예문을 비교한 이본들의 비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 + 하느이다'의 구성에서 '-이다'에 선행했던 '하느'가 생략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어' 앞에 나오는 어사가 주로 심리동사나 형용사가 쓰였기 때문에 굳이 그 심리를 뒤에 나오는 대동사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한 일반적인 내용어로서 생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동사가 떨어져 나간 '-이다'가 심리를 나타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이다'의 구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 구성은 타동성의 표현인 '-어 하느이다'의 구성에서 축약 현상을 일으키어 '-어이다'의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어이다'의 구성은 축약되면서 타동성이 약해지고 선행하는 자동사와 형용사의 심리 상태를 주로 표현하는 구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어이다'의 구성은 공손법의 선어말어미 '-이-'의 영향으로 '-이다'의 구성이 화용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현대국어의 '-요'와 같이 존대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 '-어이다'의 구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다'가 현대국어의 '-요'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게 되어 상대존대를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다'의 쓰임은 자동사나 형용사는 물론이고 타동사에도 붙어 상대존대의 존칭을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여이다'의 구문에서도 하나는 '주었습시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주여 민망하느이다'와 같이 화자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다. 아무튼 '주여 민망하느이다'의 구문에서 '주여이다'가 나오고 이런 '-어이다'의 구문에서 '-이다'가 독립될 수 있으므로 현대국어의 '요'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어이다' 구성과 경어법

'-어이다'와 '-어 하다'의 구성이 보여주는 경어법상의 특징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어이다'는 '-이다'가 연결되는 관계로 하오체 이상의 경어법 위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이다'의 구성으로는 하계체를 전혀 나타낼 수가 없다. 만일 하계체를 나타내려면 '-에/애, -예/애'라는 축약된 종결어미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구성은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현대국어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이다' 구성은 하오체 이상의 위계에서만 쓰이는 경어법임을 알 수 있다.⁸⁾ <철해신어> 이본을 비교해 보면, '-어이다' 구성은 '-외다, -외'로 비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오이다'의 축약으로 보인다.

(18) a. 看品은 無事히 好오니 아롬답스의 <原捷2,18b> (cf. 看品은 無事히 몬조오니 아롬다이 너기옵니 <改-2,27a>)

b. 貴翰을 拜見好오니 니일부터 두로 잔치호신다 호오니 심심한 때 7장 뜰스의 <改重10下,14b> (cf. 두로 잔치호신다 호오니 심심한 때 7장 뜰스와이다 <改-10下,18a>)

'-어이다' 구성은 적어도 하오체 이상의 위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에/애, -예/애'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표현을 하려면 '-어 하다'의 구성인 '-어 하옵니, -어 하옵느이다, -어 하느이다, -어 하뇌' 등과 '-오이다'의 축약형인 '-외'의 구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롬답다, 감격하다'는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19) a. 아롬답스와이다

b. 아롬답스의

8. '-어이다' 구성은 구어체 문헌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捷解新語> 이본과 <伍倫全備諺解>, <隣語大方> 등에서 주로 보인다.

c. 아름다와 하늬이다(하옵니)

‘-어 하다’ 구성은 ‘-어 하옵니, -어 하옵늬이다, -어 하늬이다’ 등으로 쓰인다. 이러한 구성들은 합쇼체와 하오체를 나타내는 구성이다. 만일 ‘-어 하옵니’에서 선어말어미인 ‘-옵-’을 빼면 ‘-어 하늬’로 하계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 하다’의 구성은 ‘-어이다’와는 다르게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등에서 쓰일 수 있는 구성이다.

(20) a. 軍官을 보내여 부르시니 감격하여 하옵니 <原捷1,22b>

b. 渡海하신 치하를 위하야 目錄대로 밧좁고 千萬 감격하야 하늬이다 <改一10上,17a>

<곽씨언간>에서도 ‘-어이다’ 구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만 쓰이고, ‘-어 하다’ 구성은 ‘-어 하늬’의 구성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계체(또는 하오체)로 말할 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

(21) a. 기별 모르와 민망하여이다. <곽씨언간123>

b. 이 사람이 하 굽디니 닷 유무 묻 하늬 호운하여이다. <곽씨언간129>

c. 나는 썸이 밋일 은 몸애 그촌 적 업시 나니 만음이 해 썸듯 하고 은 몸이 아니 촌 더 업스니 민망하여 하늬. <곽씨언간17>

d. 나는 편히 와 있뇌. 커니와 자내 영히 성치 묻 하여 겨신 거슬 보고 오니 지극 호운하여 하뇌. <곽씨언간8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경어법 중 상대경어법을 나타내는 어미로는 ‘-이-’가 쓰이고 있었다. 이 선어말어미는 근대국어에 들어오면서 ‘ㅇ’의 음가가 약화되어 선행하는 요소에 축약되는 현상이 나타났

9. 이 예문은 경북대 백두현교수가 정리한 ‘곽씨언간’의 예문을 제시한 것이다. 백교수는 ‘진주하씨묘 한글편지’를 ‘곽씨언간’으로 부르고 있다.

다. 근대국어의 초기문헌인 <捷解新語>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공손법의 선어말 어미의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22) a. 왔습^느이다 - 왔습^너 (cf. 왔습^{니다} - 왔^네)
 b. 아름답^스오이다 - 아름답^스의 (cf. 아름답^소이다 - 아름답^소)
 c. 오습^시도소이다 - 오습^시도쇠 (cf. 오셨^소이다 - 오셨^소)
 d. 보습^사이다 - 보습^새 (cf. 보^시다 - 보^세)
 e. 긴거^호습^더이다 - 긴거^호습^테 (cf. 기^빠합^디다 - 기^빠하^테)

위의 예에서 '-습^느이다, -습^더이다, -습^사이다'는 현대국어에서 '합쇼체'로는 '-습^{니다}, -습^디다, -습^{시다}'로 바뀌고, '하계체'로는 '왔^네, 하^테, 보^세'등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오이다, -소이다'의 경우, '합쇼체'로는 여전히 '-오이다, -소이다'가 쓰이고 있고, '하오체'로는 '-이다'가 생략된 '-오, -소'가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捷解新語>에서 보여주는 예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예는 바로 위에서 보인 '-이다'가 생략된 것이거나 이미 '-이다'가 생략된 형태에 다시 '-이다'가 첨가된 예가 그것이다.¹⁰⁾

- (23) a. 우리는 덕분을 **뻬** 아므 일도 업시 완너이다 <原捷2,1b>
 b. 하 전소이 너기오와 **다** 먹습너이다 <改-2,10b>
 c. 너일 나죄란 入館^호여 보습^새이다 <原捷1,21a>
 d. 7장 도싼오니 그리 **호**습^새이다 <改-3,13a>
 (24) a. 니즌 스이 업시 兪官^들의 니르고 잇습너이다 <原捷2,17a>
 b. 니즌 스이 업시 兪官^들께 니르고 일습너 <改-2,25a>

10. '일습너, 일습너이다, 일습^느이다'와 유형이 한 문헌에 공존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논문을 달리하여 발표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도 필자는 '-이다'가 화용적인 요소임을 밝히려 한다.

c. 니즌 스이 업시 兪官들꺈 니르고 인습느이다 <改重2,25a>

‘-소이다, -오이다, -느이다, -더이다, -사이다’ 등의 어미 구성체에서 ‘-이다’가 축약과 생략현상을 거치면서 ‘-쇠, -외, -니, -데, -새’ 등으로 바뀌고 그것은 현대국어에서는 ‘-소, -오, -네, -데, -새’ 등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손법의 선어말어미인 ‘-이-’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잇습느이다’가 ‘잇습니이다’로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이-’가, 선행하는 ‘-느-’와 음운현상을 일으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¹¹⁾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예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문헌에서 ‘잇습느이다’와 ‘잇습니이다’류가 중복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두 구성체가 같은 기능을 한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두 유형으로 나누어 쓰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본을 비교해 보면, ‘잇습니이다, 잇습니, 잇습느이다’가 같은 내용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잇습느이다’류는 당시의 ‘합쇼체’에 해당하는 극존칭의 구성을 보이고 있고, ‘잇습니’는 ‘-느이다’류 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은 ‘하오체’에 해당하는 상대경어법의 위계를 보이고, ‘잇습니이다’류는 그 등급은 ‘합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성방식이 ‘잇습니’로 변화한 ‘하오체’의 등급에 이미 분리되어 기능하고 있는 ‘-이다’를 연결함으로써 ‘잇습니이다’의 구성체로 극존칭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상대존대의 형태소 ‘-요’를 이용하여 ‘웃어요, 있어요’와 같은 존대표현이 가능함을 예로 들 수 있다.

11. ‘잇습니이다’의 경우, 대부분의 견해는 올라우트나 y음 개체에 의한 음운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문법적, 화용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에 선다.

- (25) a. 붓그럽스왕이다 - 부끄럽사와요
- b. 뜯스와이다 - 쫓사와요
- c. 아름다와이다 - 아름다워요

위의 예는 근대국어의 예를 현대국어나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고어의 표현으로 바꾸어 본 것인데 '-이다'가 '-요'로 교체된 예를 보인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¹²⁾ 다만 현대국어에서 '-요'가 '해요체'에 해당하여 '합쇼체'보다 상대경어법상의 위계가 낮기 때문에 '-이다'와 경어법상으로 일대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합쇼체'가 차츰 '해요체'로 바뀌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위의 예가 성립하는 데 전혀 낮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국어 문헌인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어이다' 구성과 '-어 흐느이다' 구성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이다'의 구성에 나타나는 '어/아, 워/와, 여/아'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선어말어미로 처리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접속어미와 활용이 똑같은 위의 어미를 부동사형어미로 해석하였다.

둘째, '-어이다' 구성이 '어간 + 부동사형어미 + -이다'의 구성을 갖게 된 것은 '-어 흐느이다'의 구성이 축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어 흐느이다' 구성은 자동사와 형용사 및 타동사에도 연결이 가능한데 동작 및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구문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어이다'의 구성은 '-애/애, -에/애'와 같은 축약된 종결어미를

12. 근대국어에서 '아름다와이다'의 경우에는 '아(와)'가 부동사형어미였지만 현대국어의 '아름다워요'에서 '아(워)'는 종결어미로 처리해야 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어말어미의 연결관계와는 다르게 보아서 '이다'가 문법적인 기능을 벗어나 화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넷째, '이다'의 화용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많은 용례를 검토해야 하지만 일단 이 논문에서는 주로 <침해신어>에 나타난 언어 현상만으로 해석하였다. 차후에 다른 각도에서 '이다'의 화용적인 기능을 해명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김형규. 1955. 古歌註釋. 서울: 白映社.
서태룡. 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송철의. 1983.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47-72.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이태영. 1997. 역주 침해신어. 서울: 태학사.
이현희. 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143-163.
이현희. 1985. "'하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한신논문집, 2, 221-247.
이현희. 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황문환. 1997. 16, 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 연구, 정문연 박사학위논문.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yty@moak.chonbuk.ac.kr

Fax : 0652-270-3169

Tel : 0652-270-3180